

# 영·호남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지역감정 평가\*

## Children and Adolescents' Evaluation of Regional Antagonism in Youngnam and Honam Region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전공

부 교수 공인숙\*\*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 교수 민하영

Dept. of Consumer & Family-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Kong, In-Sook

Dep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 of Deagu

Assistant Professor : Min, Ha-Yeoung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valuation of regional antagonis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Youngnam and Honam region.

There were 684 subjects included in this study from three ages in the Youngnam and Honam regions: 12.8 years (6th grade, n=208), 14.8 years (8th grade, n=211), and 16.9 years (10th grade, n=265). Of the 684 subjects, 357 (53.3%) were boys and 327(47.8%) were girls. The instruments consisted of subjects' self-reported social distance, stereotype, and prejudice.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one-way ANOVA and the Scheffé test.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mean score of the out-group stereotype was greater than the median, so the in-group preference was greater than the out-group exclusion. The in-group stereotype was different based on the age and the sex. The 6th and 8th graders and the boys were higher than 10th and the girls. The prejudice was different based on the region. The social distance was different based on the age and the region.

---

▲주요어(Key Words) : 지역감정(regional antagonism), 고정관념(stereotype), 아동(child), 청소년(adolescent)

### I. 서 론

지역감정이란 대부분 지역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발생(김홍석, 1989)하는 것으로, 지연에 기초하여

---

\* 이 논문은 2005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공인숙 (E-mail : iskong@sunchon.ac.kr)

형성된 여타 지역이나 지역 사람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속성의 심리상태(조경근, 1987)를 의미한다. 즉 지역감정이란 충분한 근거 없이 특정 지역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태도라 할 수 있다. 편견이라는 것이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Allport, 1954) 또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집단에 대하여,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갖는 부정적 태도(Asmore

& DeBoca, 1976)임을 고려(안신호, 1988 재인용)해 보면, 지역감정은 반편견 교육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반편견 교육이란 기존의 선입견, 고정관념 및 편견에 도전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방식으로, 편견이나 불공정에 대한 대처 방식을 다루는 교육을 말한다. 반편견 교육은 다른 인종, 성, 사회계층,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세계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존의 다문화 교육보다 포괄적인 교육내용이라 할 수 있다. Jones 와 Derman-Sparks(1992)는 사회구성원이 통찰력 있고 자신감 있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편안하고 감정 이입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편견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편견에 대항하여 자신과 타인을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반편견 교육의 궁극적 목표라 하였다.

이러한 반편견 교육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로 이루어진 미국에서 주요 교육 활동으로 제안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인종, 다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능력, 연령, 외모, 신념, 계층, 문화, 가족구성, 성, 인종, 성애의 10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반편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10가지 주제들은 그들 문화에서 생애 초기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쉽게 형성될 수 있는 편견의 영역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반편견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교육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반편견 교육 내용은 주로 이혼, 한부모 가족, 장애 등과 같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김경, 2003; 박해미·정종원, 2000; 서영숙·황은숙, 2002; 유수옥, 2001; 최연자·이영석, 2001; 최윤희·이소현, 2004) 미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10가지 반편견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역감정이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감정 극복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주요 반편견 교육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상대방에 대한 차별이나 거부를 설명하는 연구는 피해 아동의 행동이나 사고를 변화시키는 개입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Coie & Koepple, 1990). 그러나 최근에는 상대방을 차별하거나 거부하는 사회적 집단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개인의 사회적 기술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차별이 나타나는 원인으로서는 흔히 성, 민족, 인종, 종교, 사회적 계층 등이 지적된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거부의 기제로는 관련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이 작용한다고 여겨진다(Killen et al., 2002).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족이나 종교보

다는 주로 출신지역에 따른 집단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문제가 되므로,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도전하는 능동적 접근 방법인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에서 지역감정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역감정은 영·호남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영·호남 지역의 지역감정은 역사성과 더불어 상호지향적인 방향성을 띠고 있으며, 개인의 판단이 아닌 집단 경험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박군석·한덕웅, 2003; 차종천, 1987). 게다가 정치적 목적으로 각종 선거 기간에 지역간 갈등을 악용하면서 영·호남 지역의 지역감정은 더욱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군석·한덕웅, 2003; 홍원표, 2001). 실제로 영·호남의 불균형 개발에 따른 사회적 소외감이나 행정부 내각 구성 시 지역안배 등이 고려되는 것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음(홍원표, 2001)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호남의 지역감정은 각각의 지역 안에서 극복해야 할 대표적 사회적 편견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감정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감정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우선 사회학 분야에서는 선거나 계층을 중심으로 연구(소순창, 2001; 온만금, 2003; 이소영·정철희, 2003; 차종천, 1987; 한상진, 1998)가 이루어졌으며, 심리학 분야에서는 주로 사회정체감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접근의 연구(김범준, 2002; 김진국, 1988; 김혜숙, 1993; 박군석·한덕웅, 2003; 송관재·이훈구, 1991)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지역감정은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지만 주로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역감정이 이용되어져왔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선거 유권자, 즉 성인들이 지역감정에 관한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성인 중심의 지역감정 연구는 지역감정을 성인기의 문제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Araujo & Strasser, 2003; Devine, 1989; Jones & Derman-Sparks, 1992; Killen et al., 2002)은 생의 초기가 물리적, 사회적 세계를 학습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접근 방식과 특정한 선호를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반편견 교육은 생의 초기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지역감정 역시 사회적 편견으로 형성된 것으로 생의 초기부터 형성될 가능성이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감정에 관한 반편견 교육은 생의 이른 시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성인기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후기 아동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나, 청소년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이들은 보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가설적 상황에서의 이해력이 높아지는 인지 발달을 경험하게 됨으로, 사회적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평가에서 새로운 추론을 사용하게 된다(Turiel, 2002). 따라서 이들은 실제적인 지역 차별 경험이 별로 없었다 하더라도 지역감정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되는 가치나 태도는 이후 시기에도 꾸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후기 아동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감정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역감정이란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 그 정의는 비교적 불분명하다. 이는 지역감정 연구가 다양한 시각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이소영·정철희, 2003).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이 지역감정의 개념 정의에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지역감정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정의를 선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지역감정을 지역적 연고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적대감으로 정의(김진국, 1988; 김혜숙, 1988)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집단적 적대감은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를 포함한다. 우선 지역감정의 인지적 요소는 내집단 성원 혹은 외집단 성원의 특성에 대한 신념의 측면으로 고정관념이 이에 해당된다(김혜숙, 1988). 즉 고정관념이란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믿는 성격이나 행동양식에서의 특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이나 신념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고 부정확하며 비논리적이거나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다음으로 지역감정의 감정적 요소는 대립되는 집단 성원에 대한 느낌, 즉 호오도나 수용·배척으로 표현되는 태도의 측면으로서, 이는 인지적 요소인 고정관념과는 달리 매우 단순하여 어느 정도 싫어하는 가를 반영할 뿐이다(김진국, 1988). 일반적으로 지역감정의 감정적 요소는 편견(prejudice)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감정의 행동적 측면으로서의 차별은 어떤 지역의 개인이나 집단의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차별의 수준 및 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차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지당이나 투표 성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즉 이 경우는 지역감정의 행동적 측면을 지역주의로 파악한 것(온만금, 1997)이다. 그런데 선거와 같은 형태의 차별은 본 연구의 대상인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아동

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황에서의 차별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감정의 행동적 요소인 차별을 아동의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인 전학, 채팅, 영화관람 등의 상황에서 친구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 거리감으로 보고자 한다.

이상의 지역감정의 개념이나 측정 도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었던 척도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탐색적 특성 상,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2가지 척도와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모두 적용하여 아동의 지역감정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역감정은 영·호남 지역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박근석·한덕웅, 2003; 차중천, 1987)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남지역과 경북지역은 지역감정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지역의 지역감정은 각각의 지역 안에서 극복해야 할 대표적 사회적 편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남지역과 경북지역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감정의 양상을 밝힘으로써,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이나 편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영·호남 지역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지역감정 중 고정관념은 어떠하며, 지역, 학년,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영·호남 지역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지역감정 중 호감도는 어떠하며, 지역, 학년,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영·호남 지역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지역감정 중 사회적 거리감은 어떠하며, 지역, 학년,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조사 대상 아동은 총 684명으로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즉 지역별로는 영남 지역에서

&lt;표 1&gt; 조사 대상의 일반적 성격

(빈도,%)

지역 \ 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계
영남	107(15.6)	111(16.2)	135(19.7)	353(51.6)
호남	101(14.8)	100(14.6)	130(19.0)	331(48.4)
계	208(30.4)	211(30.8)	265(38.7)	684(100.0)

353명이 호남 지역에서 331명이 조사되어, 영남 지역의 아동의 수가 약간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12.8세) 아동이 208명, 중학교 2학년(14.8세)이 211명, 고등학교 1학년(16.9세)이 265명으로 고등학생이 다소 많은 편이었다. 이는 고등학교의 경우 남녀 합반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성비를 맞추기 위해 과 표집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남학생이 357명으로 전체의 52.2%였고, 여학생이 327명(47.8%)으로 남학생이 약간 많은 편이었다. 조사 일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연령은 평균 12.8세, 중학교 2학년 아동은 14.8세, 고등학교 1학년은 16.9세 이었다.

## 2. 측정도구

### 1) 고정관념

지역감정의 인지적 측면인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김진국(1987), 김혜숙(1993), 송관재와 이훈구(1991)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 영·호남에 대한 고정관념 특성들을 토대로 하여 29개의 특질 형용사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특질 형용사에 대해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정적 의미를 지닌 형용사는 역산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가능 점수의 범위는 29~116점이며,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내집단 고정관념)의 경우 .87이었으며, 상대 지역 주민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인 외집단 고정관념은 .85 이었다.

### 2) 호감도

지역감정의 감정적 요소인 영·호남 지역민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혜숙(1988)이 사용한 호오도 척도를 기초로 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하였다. '그냥 좋다'(4점), '좋은 편이다', '싫은 편이다', '그냥 싫다'(1점)의 4점 리커트로 측정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각 지역 사람에 대해 낮은 호감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 3) 사회적 거리감

지역감정의 행동적 요소인 영·호남 지역 출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Killen et al., 2002)를 토대로 7개의 사회적 거리감 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은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이나 이웃, 친교 활동 중에 흔히 경험하는 전학, 채팅, 영화관람, 수련회 등의 상황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함께 전학 온 경북 안동 아이와 전남 광주 아이 그리고 충남 대전 아이 중 짝을 선택하려면 우선 누구를 고르겠는가?"와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가장 먼저 선택된 경우에 1점, 두 번째로 선택된 경우에 2점, 마지막에 선택된 경우에 3점을 부여한다. 이 때 점수가 높을수록 거리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sup>2)</sup>. 점수의 범위는 7~21점이며,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영남지역의 경우 .83, 호남 지역 .86이었다.

## 3. 자료 수집 절차 및 자료 분석

질문지는 아동학 전공자 2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 초등학교 6학년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검사의 내용 이해와 질문에 어려움이 있는가를 예비 조사하여 수정 보완되었다. 본 조사는 각 급 학교에서 담임교사 또는 학과 담당 교사가 690부의 질문지를 배포한 후 응답 후 수거하였다. 6부의 부실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68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우선 지역감정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거주 지역, 학년에 따라 지역감정의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t 검정, 분산분석을 하였고, 추후 검정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원칙적으로 서열척도이므로 비모수 통계를 사용해야 하나, 그 경우 이후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표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며, 비모수 통계의 결과와도 차이가 없었으므로 연속변수처럼 취급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영·호남 지역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1) 영·호남 지역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정도

영·호남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람들에 대해 평가하는 내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정도는 <표 2>와 같았다. 지역감정의 인지적 측면인 고정관념의 가능 점수 범위는 29~116점이므로 중간값은 72.5점이다. 영남지역 아동 및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영남지역 사람들에 대해 78.08점으로 평가해서 중간보다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남지역 아동 및 청소년은 호남지역 사람들에 대해 82.14점으로 평가해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신이 속하지 않은 상대지역인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평가는 <표 3>와 같았다. 우선 영남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전라도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은 74.14점으로 나타나 중간값인 72.5점과 비교할 때 중간 보다 약간 높은 긍정적 고정관념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호남지역 아동 및 청소년은 경상도 사람들에 대해 73.61점으로 평가해서 중간값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즉 지역감정의 인지적 측면인 긍정적 고정관념은 내집단의 경우 중간보다 높았고 외집단의 경우도 중간 정도였다. 이는 영·호남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고정관념이 내, 외집단 모두에게서 중간값 이상임을 고려할 때, 지역감정이 외집단 배척보다는 내집단 선호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2) 지역, 학년, 성에 따른 고정관념의 차이

<표 2>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의 평균과 표준편차

(N=684)

지역	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계
	영남		78.08(10.59)	79.25(11.23)	76.20( 9.76)
호남		82.71(10.34)	83.90(11.68)	80.43(11.66)	82.14(11.36)
계		81.25(10.61)	81.51(11.65)	78.30(10.93)	80.11(11.16)

<표 3>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의 평균과 표준편차

(N=684)

지역	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계
	영남		73.26(10.79)	73.53(11.01)	75.26( 9.60)
호남		76.24(11.24)	72.68(12.99)	72.48( 9.23)	73.61(10.79)
계		74.70(11.08)	73.12(11.47)	73.88( 9.50)	73.88(10.60)

<표 4> 지역, 학년, 성에 따른 고정관념의 차이

(N=684)

구분	내집단고정관념		외집단고정관념	
	평균(표준편차)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표준편차
지역	영남	78.08(10.59)	74.14(10.41)	
	호남	82.14(11.36)	73.61(10.79)	
	t	-20.03***	.01	
학년	초등학교 6학년	81.25(10.61) a	74.70(11.08)	
	중학교 2학년	81.51(11.65) a	73.12(11.47)	
	고등학교 1학년	78.30(10.93) b	73.88( 9.50)	
	F	5.98**	1.07	
성	남학생	80.68(11.79)	73.07(10.63)	
	여학생	79.51(10.43)	74.83(10.48)	
	t	5.99*	.01	

\*p< .05, \*\*p< .01, \*\*\*p< .001

<표 5> 영·호남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대상 지역민에 대한 호감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684)

지역	대상	호감도	
		경상도사람에 대한 호감도	전라도사람에 대한 호감도
영남		3.27( .70)	2.60( .92)
호남		2.49( .89)	3.39( .61)
계		2.89( .88)	2.98( .88)

<표 6> 영·호남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대상 지역민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 (N=684)

구분		호감도	
		경상도사람에 대한 호감도 평균(표준편차)	전라도사람에 대한 호감도 평균(표준편차)
지역	영남	3.27( .70)	2.60( .92)
	호남	2.49( .89)	3.39( .61)
	t	12.84***	-13.19***

\*\*\*p< .001

<표 7> 경상도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N=684)

지역	학년	사회적 거리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계
영남		10.14(2.70)	10.20(2.59)	10.20(2.75)	10.18(2.68)
호남		16.54(2.29)	16.48(3.16)	16.42(2.50)	16.47(2.65)
계		13.29(4.07)	13.14(4.25)	13.34(4.07)	13.26(4.12)

영·호남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내,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지역, 학년,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즉 내집단 고정관념은 학년과 지역,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호남지역 아동 및 청소년이 영남지역 아동 및 청소년보다 자신이 속한 지역민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을 더 높게 평가했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 정도는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 정도가 높았다. 그에 비해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지역과 학년,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2. 영·호남 지역사람에 대한 호감도

1) 호감도 정도

지역감정의 감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호감도는 1-4점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중간값은 2.5점이다. <표 5>에 서와 같이 영남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이 경상도 사람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는 평균값이 3.27로 중간값을 상회하는 반면, 전라도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2.60으로 중간값 정도

를 보였다. 이런 경향은 호남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유사하였다. 즉 호남지역 아동 및 청소년은 전라도 사람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의 평균은 3.39로 중간값보다 높았으나, 경상도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2.49로 중간 정도를 나타냈다.

2) 지역, 학년, 성에 따른 호감도의 차이

지역감정의 감정적 요소인 호감도가 지역, 학년,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호감도는 지역에 따른 차이만이 나타났고,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즉 영남지역 아동 및 청소년은 경상도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호남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은 전라도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 지역에 대한 호감도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3. 사회적 거리감

1) 사회적 거리감 정도

사회적 거리감은 7~21점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중간값은 14점이다. <표 7>에서와 같이 영남지역의 아동

<표 8> 전라도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N=684)

지역	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계
	영남		16.11(2.58)	16.61(2.58)	16.84(2.75)
호남		9.29(2.38)	10.10(2.91)	9.13(2.13)	9.47(2.49)
계		12.71(4.22)	13.56(4.25)	12.94(4.58)	13.07(4.38)

<표 9> 지역, 학년에 따른 대상 지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

(N=684)

구분	영남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지역	영남	10.18(2.68)	16.55(2.66)
	호남	16.47(2.65)	9.47(2.49)
	t	-30.43***	35.39***
학년	초등학교 6학년	13.29(4.07)	12.72(4.22)a
	중학교 2학년	13.14(4.25)	13.56(4.25)b
	고등학교 1학년	13.34(4.07)	12.94(4.58)a
	F	1.01	3.38*

\*p< .05, \*\*\*p< .001

및 청소년이 경상도 아이를 친구로 선택할 때,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값은 약 10.18점 정도로 별로 거리감이 없는 편임을 보인다. 그에 비해 호남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이 경상도 아이에게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16.47점으로 중간값을 상회해서 거리감을 느끼는 편임을 보인다.

이런 양상은 호남 아이에 대한 거리감에서는 반대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서 <표 8>에서는 영남지역 아동은 16.54점의 높은 거리감을 보인 반면에 호남지역 아동은 9.47점으로 중간값과 비교할 때, 거리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 학년, 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

영·호남지역아동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표 9>에서와 같이 지역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영·호남 지역 아동은 자신이 속한 지역보다, 상대 지역에 대해 거리감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중학생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호남에 대한 거리감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성별 거리감의 차이는 없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호남 지역 아동 및 청소년 684명을 대상으로 지역감정의 양상을 살피고, 지역, 학년, 성에 따른 차

이를 탐색함으로써,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이나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호남 지역 아동의 지역감정 중 인지적 요소인 고정관념 값은 내, 외집단 모두에서 중간값 이상을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 대상자로 한 김범준(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영·호남의 아동 및 청소년은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 보다는 내집단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내집단에 대한 호의적 감정과 그 외의 집단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은 자기 지역에 대한 우월감이나 상대 지역에 대한 반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영·호남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고정관념은 외집단에 대한 배척보다는 내집단을 선호하는 것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은 고등학생이 되면 보다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서, 연령 증가에 따라 고정관념이 감소했다는 선행연구(Enesco et al., 2005)와 일치한다. 즉 고정관념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습득되며, 이후에 고정관념에 자주 노출될수록 점차 자동적인 과정으로 변화(Devine, 1989)한다. 그러나 아동기의 고정관념은 이후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나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약화되어, 개인적 신념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의 고정관념이 보다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남학생의 내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학생보다 높은 결과는 지역감정 영역 중 유일하게 성차가 나타난 부분이다. 이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며, 차이가 적게 나타났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이 보수적이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추후 연구에서 다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내집단 고정관념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감소하는 반면에 외집단 고정관념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영·호남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상대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이 연령 증가에 따라 변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간 정도의 외집단 고정관념이 유지된다는 것은 이들에게 상대지역에 대한 경험이나 교류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넷째, 지역감정의 감정적 요소인 호감도는 지역에 따른 차이만이 있고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편견이 8세경에 최대로 높아지고 이후에는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Aboud, 1988; Aboud & Amato, 2001; Enesco et al., 2005)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자신에 대한 기대를 이해하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신념과 감정을 숨기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 지역에 대해 중간값 이상의 호감도를 보였고, 그에 따라 연령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영·호남 지역 아동은 자신이 속한 지역보다, 상대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자기지역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높게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김범준, 2002; Enesco et al., 2005; Mullen et al., 199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집단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동료의식이나 충성심을 보이는 반면, 외집단의 사람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태도나 행동이 나타나거나 편견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박아청, 2006: 416). 이처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거리감이 낮으며 호감을 갖는 것은 우선 정보처리 입장에 의해 설명된다. 즉 인간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정보를 범주화한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전략이 자기를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경향이이며, 따라서 타인을 자신의 집단에 속하거나 다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범주화는 이후 집단에 대한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 기대(Dovidio & Gaertner, 1993)나 집단 관련 정보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다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거리감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런 현상은 사회정체감 이론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한데, 개인은 집단적 맥락에서 지위가 높은 집단

에 소속하려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김혜숙, 1988).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 역시 보다 높은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서 자기 지역을 선호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지역감정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어린 시기에 도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생활에서 지역적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에도 상대 지역에 대한 거리감, 고정관념의 경향이 있으므로, 상대 지역에 대한 지식이나 접촉을 증가시키는 것 등을 통한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시, 연령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며, 프로그램 영역에 따라서는 성에 따른 구별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감정의 양상을 지역, 학년, 성과 같은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자원의 배분이 집단적 적대감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학습이나 다양한 대중매체의 역할을 고려한 연구를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지역감정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영·호남 지역 아동 및 청소년만이 대상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지방색이나 지역감정 해소 방안을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남과 호남의 일부 아동과 청소년을 유의 표집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감정 연구에서 벗어나, 아동 및 청소년의 지역감정 양상을 밝히고 지역감정 극복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접 수 일 : 2006년 11월 13일

□ 심 사 일 : 2006년 12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2월 05일

#### 【참 고 문 헌】

- 김경(2003). 반편견 이야기 나누기가 유아의 편견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2003 연차학술대회, 290-303.
- 김범준(2002). 사회적 범주화가 지역감정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1-18.
- 김진국(1988). 지역감정의 실상과 그 해소 방안.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79-101.
- 김혜숙(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세대간 전이



- 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37-62.
- 김혜숙(1993).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53-70.
- 김홍석(1989). 지역감정의 사회학적 이해.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근석·한덕용(2003). 영·호남인의 사회구조 요인 지각과 사회정체성이 상대박탈과 집합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59-72.
- 박아청(2006). 성격발달심리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박해미·정종원(2000). 반편견 교육과정의 적용: 이혼개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0(4), 127-147.
- 서영숙·황은숙(2002). 한부모 가정에 대한 반편견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7(1), 205-227.
- 소순창(2001).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지역주의와 정당투표: 긍정적 투표와 부정적 투표. 2001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7-136.
- 송관재·이훈구(1991). 특질유사성 측정 방법이 특질의 지각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32-46.
- 안신호(1988). 집단 고정관념 형성에 있어서의 감정과 지성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3-36.
- 온만금(2003). 한국정당체계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이론(1948-2000): 지역주의, 선거법, 그리고 정당체계. 한국사회학, 37(3), 135-157.
- 유수옥(2001). 반편견 동화에 기초한 문학적 활동이 장애유아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역할 인식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21(3), 217-236.
- 이소영·정철희(2003). 전통적 가치와 지역감정. 한국사회학, 37(5), 31-54.
- 조경근(1987). 정치사회화의 시각에서 본 영·호남 간의 지역감정의 실재와 악화 및 그 해소. 한국정치학회 제 7회 합동학술대회논문집, 107-126.
- 차종천(1987). 지역주의가 한국사회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민의 출신지역별 지위획득과 사회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1, 69-90.
- 최연자·이영석(2001). 사연있는 인형을 활용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2(3), 195-209.
- 최윤희·이소현(2004). 장애유아 통합을 위한 반편견 교육의 동향 및 과제: 최근 10년간 국내의 연구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20(2), 1-26.
- 한상진(1998). 지역주의와 계급정체감이 투표성향에 미치는 영향-울산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98 후기사회학 발표문요약집, 87-96.
- 홍원표(2001). 한국의 지역주의 문제와 정치 공동체 이념의 구상: 배제와 욕망의 정치에서 균형의 정치로. 대한정치학회보, 9(1), 285-308.
- Aboud, F. E.(1988). *Children and prejudice*. Oxford: Blackwell.
- Aboud, F. E. & Amato, M.(2001). Developmental and socialization influences on intergroup bias. In R. Brown, & S. Gaertner(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Intergroup processes*(65-85). Oxford: Blackwell.
- Araujo, L. & Strasser, J.(2003). Confronting prejudice in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Kappa Delta Pi Record*, 39(4), 178-182.
- Coie, J. D. & Koepple, G. K.(1990). Adapting intervention to the problems of aggressive and disruptive rejected children. In S. Asher & J.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vine, P. G.(1989).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prejudice: the role of stereotypes and personal beliefs.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s structure and function* (181-212).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ovidio, J. F. & Gaertner, S. L.(1993). Stereotypes and evaluative intergroup bias. In D. M. Mackie & D. L. Hamilton(Eds.), *Affect, cognition, and stereotyping: Interactive processes in group perception*(167-193). C. A.: Academic Press.
- Enesco, I., Navarro, A., Paradela, I., & Guerrero, S.(2005). Stereotypes and beliefs about different ethnic groups in Spain: a study with Spanish and Lati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Madrid.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38-659.
- Jones, E. & Derman-Sparks, L.(1992). Meeting the challenge of diversity. *Young Children*, 72, 12-18
- Killen, M., Lee-Kim, J., McGlothlin, H. & Stangor, C.(2002).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Evaluate Gender and Racial Exclus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7(4, Serial No. 271).
- Mullen, B., Dovidio, J. F. & Copper, C. J.(1992). In-group-out-group differences in social proje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8(5), 422-440.
- Turiel, E.(2002). *The culture of mor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